

“여성노동자도 직업병 심각하다”

‘직업병과 모성보호’ 사례발표회

“이 땅에 여성노동자 누구이
더나/다음세대 낳고 기를 임
마가 아니더나/생리불순 불임
유산 기형아출산 웬말이나/우
리 모두 환경개선 큰소리로 외
친다” <늙은 노동자의 노래>에
맞춰 여성노동자들이 모성을
해치는 작업환경의 문제점을
소리높여 외치는 자리가 마련
된다.

최근 몇년간 진폐증, 수은중
독 등의 직업병은 큰 사회문제
로 대두되어
왔지만 여성
노동자의 직
업 병 문 제 는
크게 다루어
지지 못해온

것이 현실이었다. 진폐증·소음
성난청 등의 직업병 유병률이
남성은 2.1%인데 반해 여성은
0.2%에 불과해 노동자들 사이
에서도 남성 노동자들만이 주
로 열악한 작업환경의 피해자
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었다.

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
한국여성노동자회, 인천여성노
동자회, 한국여성민우회와 공
동으로 27일 서울 영등포 성문

밖교회에서 열 ‘직업병과 모성
보호’ 사례발표회는 여성직업
병의 실태사례를 모아 공개적
으로 밝히는 첫 행사라는 점에
서 의의가 크다.

이날 부산여성노동자의집이
발표할 ‘부산 고무공장 여성노
동자들의 실태’에 따르면 집착
제·세척제로 주로 쓰이는 유기
용제 중독증상이 가장 심각한
것으로 나타났다.

대부분 작업장의 복합유기용

부산여성노동자의 집 이미숙
씨는 “유기용제 사용으로 월경
불순 등을 경험하는 여성노동
자들이 많다”면서 “남성보다
중독문제가 적게 이야기되는
것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하면
불안해서 스스로 직장을 그만
두고 있기 때문이다”라고 지적
했다. 고무공장에서의 유기용
제 중독증상 외에도 △은행 등
에서 컴퓨터 사용 등 사무자동
화로 최근 많아지고 있는 경건
완장해 △전자회사에서의 수은
중독 등 여성노동자들만이 집
중되어 있는 직종에서의 직업
병 발생가능성이 점점 높아질
전망이다.

이날 행사
에서 ‘여성노
동자의 직업
병과 모성보
호’를 발표할

고무공장선 유기제 중독 월경불순까지 사무자동화로 경건완장해, 수은중독도

제 농도가 허용농도의 5~6배
를 초과하고 있었으며 유기용
제 취급자들이 고무장갑도 안
낀 채 일하고 있었다.

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피
하지방이 많아 지방을 잘 녹이
는 유기용제가 몸에 더 잘 흡
입되고 오래 남아 있을 가능성
이 높은 것으로 의학계에서 밝
혀져 있어 여성노동자의 중독
가능성은 더 높다.

노동과건강연구회 조정진 조사
연구부장은 “여성은 덜 위험한
작업장에서 일할 것이라는 막
연한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한다”
면서 “어떤 작업장은 여자가
근무해서는 안된다’는 방식으
로 문제를 풀 것이 아니라 작
업환경을 개선해 남녀 누구에
게나 직업병을 일으키지 않는
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
것”이라고 말했다.

한 90.9.27